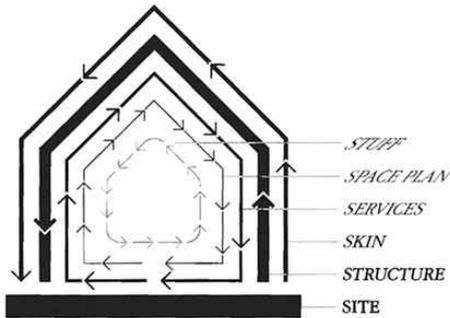


Adaptable Building

건물은 적응하고, 진화하며, 변화하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이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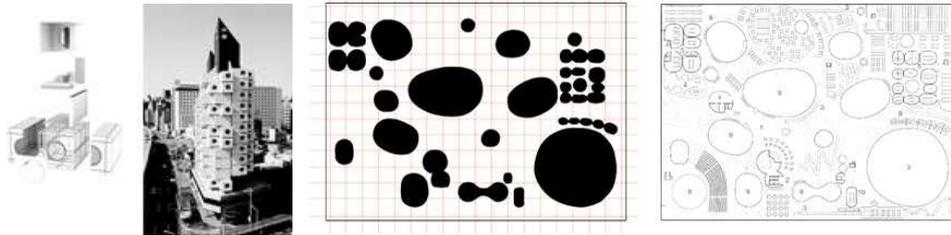


‘상황에 맞춰나가기 위해 자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 (Adaptability)’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덕목중 하나이다. 유동적 시대(liquid society, Zygmunt Bauman)에서 건축의 역할은 과거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기를 요구받고 있으며, 안정적이고 영원을 상징하는 건축물은 정적인 요소에서 주변 상황의 진화에 따라 개조하고 적응할 수 있는 동적인 요소로 생각해야한다. 이러한 관점에서 임시와 영구의 구분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둘은 균형을 이루며 공존한다.

Shearing Layers Diagram | Stewart Brand, How Buildings Learn: What Happens After They're Built

이러한 배경 하에 졸업설계 스튜디오는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. 건축은 신축 및 리모델링 모두 가능할 것이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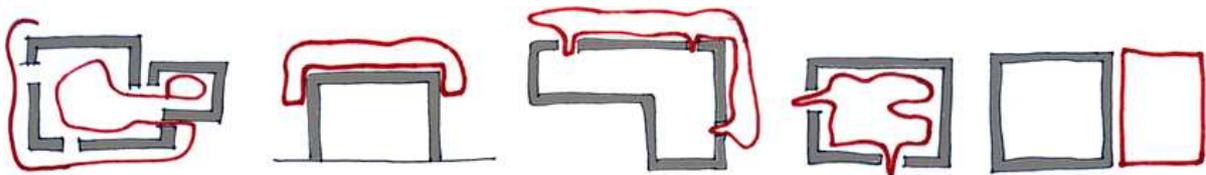
1. 신축의 경우: 건축에서 Adaptability는 다변하는 상황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건축되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는 가변적 공간계획(기능, 용도, 환경 등)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며, 프로세스의 유연성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.



functional flexibility

Rolex Learning Center - SANAA

2. 리모델링의 경우: 옛 건물이나 부지를 가져다가 설계한 목적 이외의 현대적 목적에 더 적합한 것으로 전환하여 재사용하는 과정(Adaptive reuse)으로도 해석 할 수 있다. 관련하여 건축가 프랑수아즈 볼락은 저서 「오래된 건물, 새로운 형태」에서 Adaptive reuse 프로젝트를 5가지 범주 (weavings, wraps, parasites, insertions, juxtapositions)로 나눈 바 있다.



<좌부터 1. WOVEN, THREDDDED, KNITED, 2. ENVELOPED, WRAPPED, 3.SUPERIMPOSITION, PARASITON, 4. SLEEVED, LINED, INSERTED, 5. JUXTAPOSED>



keywords: 지속가능성, 유희시설활용, revive, Adaptive re-use, Adaptable Space, Building Flexibility